

미리가 본 '공재 윤두서'전 ...국립광주박물관 21일~내년 1월 18일

'호남회화 300년'의 뿌리 만난다



해남 녹우당에 보관 중인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

윤두서 일가 서화 세계 조망 녹우당 소장작 등 200여점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1668~1715)는 조선 후기 회화사의 시작을 알리는 선구자다. 그의 서화세계는 증조부인 고산 윤선도의 시서(詩書)와 어우러지면서 호남을 '시서화'의 고장이자, 예향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특히 윤두서의 서화는 의중순인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조선시대 말기 가장인 소치 허련은 물론 정선, 심사정, 강희언, 김홍도, 이인문 등에게 영향을 끼쳤다.

윤두서가 세상을 떠난 지 300주가 됐다. 그의 서거 300년은 호남회화 300년의 궤적과 닮았다. 윤두서와 그의 일가의 서화세계를 조망하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과 해남 녹우당은 21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조선 사실주의의 선구자 '공재 윤두서'전을 개최한다. 특별전에서는 윤두서에서 아들 낙서(駱西) 윤덕희(1685~1776), 손자 청고(靑阜) 윤용(1708~1740)에 이르는 윤두서 일가의 서화세계를 조망한다.

전시에는 해남 윤씨 여초은공파의 근거지인 해남 녹우당에 보관 중인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과 보물 제481호 '윤씨가보'(尹氏家寶), '가전보화'(家傳寶繪) 등이 전시되며, 윤두서의 또 다른 명작 중 하나인 '노승도', 18세기 조선을 그린 '대동여지도' 등 녹우당 소장 작품과 그림, 서책, 인장 등 200여 점이 함께 공개된다.

가을비가 내린 20일 국립광주박물관을 찾았다.

호남지역 전통 화단의 토대를 이룬 녹우당의 분위기가 전시실 입구에서부터 느껴졌다. 입구에서는 해남 윤씨의 족보와 함께 녹우당에 소장된 중국 서적, 수학 서적인 '양휘산법', 천문도인 '방성도'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책은 세상을 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만큼 폭넓은 학문을 수용한 윤두서는 다양한 사물의 이치를 학습을 통해 작품에 녹여냈다.

발걸음을 옮기면 본격적으로 윤두서의 서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작지만 세밀하게 표현된 그의 작품들이 당시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전해줬다. 말 한 필 한 필의 생김새와 특징을 잘 표현한 윤두서의 그림에서는 힘이 느껴졌고, 부드러운 선묘와 능숙한 필치로 표현한 풍속화에서는 벼슬길을 마다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선비 화가의 마음이 읽혔다. '노승도'에서는 해탈을 앞두고 세상에 초연해진 노승의 편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윤두서의 서화 작품 뒤에는 그의 화업을 이어받은 아들과 손자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부친의 영향을 받은 윤덕희는 남종화, 산수화, 풍



윤두서 작 '노승도'

속화, 인물화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윤두서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노승도' 등 작품을 남긴 것과 달리 윤덕희는 도교 사상을 바탕에 둔 신선 그림으로 유명하다. 말 그림에서도 부친과 달리 우람한 풍채와 기상을 자랑하는 서역계통의 말을 주로 그렸다.

이어지는 작품은 국보 제240호 윤두서의 자화상이다. 특별히 마련된 별도의 전시실에 녹우당 현판과 함께 놓여 있는 윤두서의 자화상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했다. 어두운 공간을 비추는 은은한 조명은 마치 윤두서의 자화상에서 풍겨나오는 기운처럼 느껴졌다. 정면을 응시하는 그의 얼굴에서는 많은 것들이 읽혔다.

남인이었던 윤두서는 1693년 진사시에 합격했지만 당쟁이 심하던 시기에 서인에게 밀려 학문에 전념하며 시서화로 생애를 보냈다. 정치적으로 불운했던 시기에 그는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좋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학문을 연구하고, 서화를 통해 시대를 담았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무섭고 강렬한 눈매와 달리 그의 얼굴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배어나온다. 자화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본 윤두서처럼 작품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됐다. 자화상 옆에는 윤두서가 자화상을 그릴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백동경이 놓여 있다.

전시 말미에는 윤두서와 함께 호남 회화의 큰 뿌리인 소치 허련 일가의 운림산방 등을 비롯해 윤두서를 배우려 했던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문의 062-570-70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중 하모니 '정율성 축제'

'페스티벌 오! 광주...' 24~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엔 사오·야메이 유 등 세계 정상급 음악가 대거 출연

튀구는 돌에서도 음악소리가 들릴 것 같은 가을밤, 중국을 울린 음악가 '정율성의 선율'이 광주를 적신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4~25일 광주문화예술회관과 빛고을시민문화관 등지에서 '페스티벌 오! 광주-정율성 축제'를 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정율성축제 및 한중전통문화교류 공연을 선보이며, 바이올리니스트 야메이 유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대거 출연한다.



엔 사오

야메이 유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광주문화 예술회관 대극장에서는 엔 사오(현 타이페이 국립 교향악단 예술총감독)가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개막공연 무대를 선사한다. 엔 사오는 중국인으로 로는 유일하게 베이징과 타이완, 마카오에서 동시에 지휘자를 역임했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유럽 각지에서 활동한 지휘자다.

또 함께 무대에 오르는 바이올리니스트 야메이 유는 스위스 티보르 바르가 국제바이올린콩쿠르, 독일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프라이부르크 스포아 콩쿠르, 뮌헨 국제음악콩쿠르 우수한 주목받는 연주자다.

레퍼토리는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과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이다.

오는 25일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정율성 학술집' 북콘서트가 열린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율성 학술집'은 정율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동안 매년 열렸던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 및 정율성의 삶과 음악 등을 정리했다.

또 이날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하복성 기예단과 산동성 위제시 예술단이 생황, 피리, 고쟁, 얼후, 비파 등 악기로 '정음성 하도', '춘강화월야' 등 다채로운 중국

음악을 전해준다.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추이썬이 정율성 가곡 '매화를 읊노라', '위 아이니 중귀'를 부를 예정이어서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선사한다. 아이리아, 송원초등학교 합창단(광주MBC 정율성동요합창대회 대상 수상) 등 지역예술인들이 찬조를 연해 한·중전통문화의 맛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무대를 꾸민다.

이밖에도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미디어큐브338에서는 정율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정율성 100년의 숨결'을 주제로 미디어 영상제가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대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과 연계해 문화예술 협력 대안 마련 및 핵심 도출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분야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다.

입장권은 R석 2만원, S석 1만5000원, A석 1만원이며 인터파크(http://ticket.interpark.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체할인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등으로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문의 062-670-746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재 윤두서의 삶과 예술' 시민강좌

오늘 광주문화재단서 이태호 교수 강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21일 오후 7시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에서 이태호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를 초대에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첫 강좌를 진행한다.

이 교수는 이날 '공재 윤두서의 삶과 예술-풍속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윤두서의 삶과 예술을 풍속화로 풀어낼 예정이다.

이 교수는 강연외지문을 통해 '조선전기 민중생활과 현실체대를 담은 풍속그림은 양반 지식층의 감상화에 대비해 '저속한 계층의 삶을 담은 그림, 일상의 삶 자체가 숙된 일'이라는 의미로 속화(俗畵)라고 불렀다'며 '하지만 풍속화의 유행은 인간의 생산활동과 일상사가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정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의 062-234-272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담양문화원 '인문독서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담양문화원이 '제3기 인문독서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인문독서아카데미는 그동안 '지역 문화원형지원에 대한 이해와 교감 읽기', '세상을 놀라게 한 창조적 상상력 이야기' 등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해왔다.

제3기 강좌는 '문학과 음악의 황홀한 만남'을 주제로 문학, 영화, 음악을

통해 사랑과 인생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강사는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이화경씨와 벨라보체솔리스트양상범 대표 바리톤 황성철씨다. 강좌는 11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참가자는 선착순 60명을 모집한다. 문의 010-4622-278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용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용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스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